

서구 드림스타트, 목포시 일원서 '가정의 달, 행복 나들이' 실시

가족 나들이 통한 가족간 결속의 기회 제공

광주 서구가 최근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 53명과 함께 목포시 일원에서 '가정의 달, 행복 나들이'를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야외활동의 기회가 적었던 드림스타트 가족들의 가족간 친밀감 및 유대감을 강화하고, 아동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긍정적 정서발달을 도모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드림스타트는 오전 목포자연사박물관에서 파충류, 포유류 등 박제 전시물, 식물 및 곤충 표본, 공룡알 등지화석 등을 관람 후, 오후에는 목포해상케이블카에 탑승해 고하도 전망대 및 해상데크 산책을 하며 가족간 결속의 시간을 가졌다.

가족 나들이에 참여한 한 부모는 "한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나

들이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서구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나들이를 통해 드림스타트 가족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다양한 가족 문화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드림스타트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 드림스타트는 가족 나들이 프로그램 외에도 과학교실, 미술교실, 요리교실, 수영교실 등 아동을 위한 32종의 맞춤형 프로그램과 가족 및 부모를 위한 요가교실, 정리수납교실, 밀반찬 봉사, 부모마음 충전하기 등 13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관련 세부 사항 및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아동청소년과(062-360-7139)로 연락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남구 '폭염 취약가구' 노후 수전 교체 나서

"기온이 급작스레 상승해 무척 더웠는데, 새로 설치한 분사기 호스로 곳곳에 물을 뿌리면 마음까지 금방 시원해져요. 이런 것까지 챙겨줄지 몰랐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광주 남구는 올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열섬효과 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분사기 호스와 핸드 수도꼭지 등 노후 수전 교체에 나섰다.

남구에 따르면 행복한복지 7979 센터에서는 폭염을 대비해 관내 노후 주택 밀집 지역에서 '쿨한 여름 나기 노후 수전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가구의 내·외부 수전을 서둘러 교체하는 이유는 지난 4월 APEC기후변화센터에서 내놓은 '올해 5-10월 동아시아 계절 예측 기후 전망'에서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또 낡고 오래된 수전 설비를 새것으로 교체, 물 뿌리기를 통해

지표면 온도 상승으로 나타나는 열섬효과를 줄이면서 미세먼지 등을 씻겨내 쾌적한 정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남구는 지난해 사직동과 월산동, 주월2동 등 관내 노후주택에서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세대 20가구를 대상으로 폭염 대비 노후 수전을 교체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올해 사업 범위를 넓혀 6월 중순까지 노후 주택 밀집도가 높은 사직동과 월산동, 월산4·5동, 방림1·2동, 주월1·2동 등 관내 8개동 취약계층 세대 30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수전 교체 사업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이들 세대에 제공하는 수전 시설은 청소 및 분사용 호스와 분사기, 수도관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원터치 커플러를 비롯해 수도꼭지가 녹슬 경우 연로한 어르신께서 사용하기 힘든 점을 감안해 손잡이 형태로 손쉽게 돌리는 핸드형 수도꼭지로 교체할 계획이다. /윤규진 기자

북구,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독서아카데미 공모에 선정

광시 북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년 독서아카데미'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독서아카데미는 지역주민의 인문소양 증진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문학, 역사, 철학 등의 인문학 강의를 운영하는 독서문화 사업이다.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북구는 오는 14일부터 8월까지 운암도서관에서 매주 화요일 총 10회에 걸쳐 인문학 특강을 운영한다.

'삼국지, 다시 읽는 아시아 천년의 고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강의에서는 방대한 서사와 흥미로운 영웅호걸의 이야기로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삼국지에 대해 알아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벌거벗은 세계사' 등 다양한 방송매체에서 대중에게 역사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한 바 있는 전남대학교 이성원 교수가 강사로 참여한다.

강의 참여는 무료이고 신청은 북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암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북구는 올해 독서아카데미를 비롯해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지혜학교 등 인문학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 지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관 기자



광주 동구 지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기중)는 최근 관내 저소득층 주민 20명과 함께 문화 마실 나들이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 회복을 맞아 문화 체험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에게 정서적 안정 지원과 일상 회복의 발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청 제공

동구 지산2동, 소외 계층과 문화 마실 나들이

광주 동구 지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기중)는 최근 관내 저소득층 주민 20명과 함께 문화 마실 나들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 회복을 맞아 문화 체험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에게 정서적 안정 지원과 일상 회복의 발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나들이에 참여한 주민들은

동구 인문학당과 비움박물관을 차례로 방문해 해설사 설명을 들으며 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누리지 못했던 문화 혜택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기중 위원장은 "코로나로 지난 2년여 동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하지 못해 안타까웠다"면서 "앞으로도 물품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정서

적인 안정까지 세심하게 살피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정 지산2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지산2동 지사협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관내 소외 계층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다 함께 행복한 다복마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광산구 '우리동네 이웃갈등 조정가' 운영

광주 광산구는 층간소음, 흡연 등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이웃갈등 조정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이웃갈등 자치 해결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17년부터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가 양성교육'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91명이 교육을 받은 가운데, 이들 중 8명이 처음으로 '우리동네 이웃갈등 조정가' 위촉장을 받고 생활갈등 해결을 돕는 소통전문가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앞으로 광산구 마을분쟁 해결지원센터와 협력해 이웃갈등 조정·중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마을분쟁 해결지원센터(062-959-2642)에 층간소음, 흡연, 주차

문제 등 갈등민원이 접수되면, 2인 1조로 당사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화해를 위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최우선 활동 목표다.

아파트 거주율이 84%(2021년 7월말 통계청 발표)로 전국 최고 수준인 광산구는 우리동네 이웃갈등 조정가 운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이웃 간 갈등 조정 수요' 대응과 소통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웃갈등 조정가 제도가 조기 정착해 이웃과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동, 아파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조정가에 대한 실무 역량 강화교육을 병행해 조정·중재 서비스의 질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주형탁 기자

생명의 땅 강진 하늘과 바다와 강, 들이 만나는 강진 강진에서 나오는 귀한 농수산물을 드셔 보세요.

강진군과 초록민음이 추천하는 강진 건강10대 농식품



강진군은 3가지를 약속합니다

- 01 신선**
▶ 청정지역 강진에서 직접 생산
- 02 신속**
▶ 농업인 직접 택배발송
- 03 신뢰**
▶ 강진군

믿고 먹을 수 있는 맛! 착한 가격!